

獨逸語 檢認定教科書의 語彙調査研究

李 榮 久

Eine Untersuchung über die Wortschätze in den vom Erziehungsministerium genehmigten Büchern

von

Rhie, Yung-Koo

目 次

- | | |
|--------------------|--------------------|
| I. 緒 言 | (1) 對象 및 基準 |
| II. 高等學校 獨逸語教育의 現況 | (2) 語彙의 種類數와 延使用回數 |
| (1) 獨逸語教育과 教材 | (3) 頻度調査와 그 內譯 |
| (2) 教科書 一邊倒 教育의 盲點 | (4) 基本語彙 選定 |
| (3) 基本語彙選定에 對한 問題點 | IV. 結 言 |
| III. 調査報告 | 參考文獻 |

Zusammenfassung

In unserem Land beginnt die Höhere Schule die deutsche Sprache als 2. Fremdsprache zu unterrichten. Die Lehrbücher, die hier gebraucht werden, sind meist die vom Erziehungsministerium genehmigten Bücher. In Korea hält man immer noch die Grammar-Translation Methode für die beste. Diese Unterrichtsmethode, die früher zum Verstehen der Kulturen von entwickelten Ausländern eingeführt wurde, besteht schließlich darin, daß man die im Deutschen geschriebenen Bücher lesen kann. Heutzutage sind aber im Fremdsprachunterricht vier gründliche und unentbehrliche Elemente, d. h. Hören, Sprechen, Lesen, und Schreiben, gleichzeitig zu erlernen. Um dieses Ziel zu erreichen, muß die Schule verschiedene Unterrichtsmaterialien für "Audiovisual education" benutzen. Doch können wir wirklich in unserem Land auf diese Dinge genug nicht vorbereiten. Also sollen wir nur auf die Lehrbücher verlassen.

Diese Arbeit ist ein Versuch, die seit 1968 sechzehnerlei Lehrbücher zu untersuchen, indem ich mir darum die größte Mühe gebe, die Wortschätze, deren Häufigkeit und Gebrauchsanweisung der einzelnen Wörter in diesen Lehrbüchern zu untersuchen.

Durch diese Untersuchung und Analyse können wir die gründliche Wortschätze auswählen, die beim Anfangsdeutsch dem Studierenden nützlich sind. Folglich kann dieser Versuch den Lehrern oder Autoren als Nachschlagen helfen, zugleich für das künftige neue zu berichtigende Lehrbuch als Nachschlagewerk gebraucht werden.

I. 緒 言

우리나라의 外國語教育의 目的은 先進國인 西歐의 文物을 받아 들여서 自國의 文化를 이어받아 보다 높은 次元으로 이끌어 갈 知的 人間을 養成하려는데 意義를 둔, 다분히 精神面에 치중한 文化的 경향이 주도하여¹⁾ 왔으나 近者에 이르러서는 國際主義의 상황하에 目的의 變質을 가져오고 있다.

오늘날 外國語의 機能이 國際社會에 있어 通話의 手段으로서 重要하게 되자 外國語의 學習目的의 또한 文化的인 것보다 오히려 實用性을 더 強調하는 추세에 놓이게 되었다. 60年代에 와서 우리나라도 後進性의 극복을 위한 工業化政策이 추진됨에 따라 國際社會와의 交流가 날로 多樣해져서 外國語의 効用性이 더욱 增大되고 있다.²⁾ 이러한 現實的인 必要性에 비추어, 아직도 Grammar—Translation Method에 의거한 大學入試教育 위주의 外國語教育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高等學校教育은 많은 問題를 안고 있다. 더욱이 第2外國語로서의 獨逸語는 英語와 또 다른 不利한 立場에 놓여 있다. 이를테면 高等學校過程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獨逸語는 3年間の 짧은 教育期間임에도 불구하고 配當된 教育時數는 英語의 半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健實한 獨逸語教育을 기하기 위하여는 現行 高等學校 獨逸語教育의 實情을 충분히 파악하고 問題點을 찾아서 改善의 길을 마련하여야 할 必要性이 있을 것이다.

本 論稿는 이러한 要件의 하나로서 獨逸語教育에 莫重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現行 高等學校 教科書를 對象으로 하여 그 語彙分野를 다루어 보았다. 1968年 以來 高等學校 獨逸語教育의 核心을 이루는 檢認定 教科書는 文教部의 外國語教育指針에 의거하여 編著된 것이므로 國內의 어떤 教材나 參考物보다 순수한 教育的 意味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現 高等學校의 16種에 이르는 教科書에 使用된 語彙를 모두 調査하고 分析해서 統計化하고, 單語마다 그 頻度를 기록하여 全體의 平均値를 잡아 보았다. 이 作業으로 얻어진 結果는 하나의 資

1) 문교부 : 「고등학교 교과과정 독일어권 지도목표」 p. 540. 참조.

2) 池明烈 : 「제2 外國語教育의 諸問題點」 p. 182. 참조 독일문학 12집.

料로서 意義를 갖게 될 것이며 또한 이 資料를 基礎로 하여 筆者는 現在 高等學校 獨逸語教育의 成果面에 있어서 教科書의 역할이 重大함을 파악하고 教科書 作成의 主要素인 語彙選定에 따르는 여러가지 問題點을 提示하여 그 解決에 있어 筆者 나름의 의견을 전개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獨逸語 基礎學習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基本語彙選定을 위한 원칙적인 基準을 外國語教育의 目的과 相應하는 方向에서 日常 常用語와 그리고 讀解力을 돕는 語彙로 설정한 다음, 日常 常用語를 初學者가 受容할 수 있는 限界點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基本語彙를 選定함에 있어 語彙數의 制限에 대하여 몇가지 意見을 덧붙였다.

Ⅰ. 高等學校 獨逸語教育의 現況

(1) 獨逸語教育의 教材

우리나라의 外國語教育은 그 一次의 目標로서 英語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英語는 이 미 世界共通語의 機能을 認定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中學課程에서 벌써 英語는 커다란 比重으로 教育되고³⁾ 있다. 따라서 中學教育이 점차 義務教育으로 普遍化됨으로써 「英語는 第一外國語라기 보다 第二國語」로서 확대되어 가고 있다.

第二外國語로 規制된 獨逸語教育은 現行 高等學校 教科課程에서 週當 2時間을 3年間 이수케 하는 六單位制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한 外國語를 習得하는데 과연 적절한 時數인가를 따지기전에 한마디로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外國語 學習能力이 水準 以上이라고 보고 西歐人과 같이 學習여건이 學生으로 하여금 學習能率을 極大化할 수 있는 教育環境이 完備되어 있다 손 치드라도 所期의 成果를 기대하기 어려운 時數라고 하겠다. 하물며 한 教室에 60名 以上이 앉아 教師의 눈이 學生의 눈과 한번도 겹쳐지지 않는 講壇教育을 해야하는 現實情에서는 時數와 教師의 확보가 가장 必要한 一次의 條件이 된다.

現今 外國語教育을 위한 새로운 教授方法이 다각도로 提示되고 있다. 從來의 注入式 講讀教育의 專橫을 지양하고 科學的인 言語學習心理를 應用한 教授方法⁴⁾을 권장하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 從來의 讀解力 中心의 教育에서 탈피하여 입과 눈과 귀를 같이 活用한 實習을 通해서 言語를 習得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器官을 통한 經驗的 言語習得이 진실로 산 外國語教育이라고 主張한다. 이것은 外國語教育이 意思傳達의 手段으로 活用될 때 그 價値를 인정하는 實用主義의 教育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말을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는 方法을 우리는 事實 장려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方法을 구현할 여건이 갖추어지기에는 아직 요원하다. 教場의 施設이 있어야 하고 受講 學生數의 制限, 教師의 확보 等 가까운 장래에 해결할 수 없는 問題

3) 문교부 :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 참조.

4) C. C Handschin : Methods of Teaching Modern Language. p. 44.

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또한 現實의 여건이 不備하다 하여 무조건 새로운 教育方法을 全的으로 外面할 수 없다. 비록 산 教育을 할 수 있는 物理的 不擴充으로 充分한 成果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人的 勞力으로 從來의 教育方法을 어느정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教授者에게 기대할 수 밖에 없는 現狀이다.

(2) 教科書 一邊倒 教育의 盲點

教師의 合理的인 教授運營으로 最大의 教育成果를 기대해야 한다. 많이 읽히고, 많이 듣게 하며, 理解하게 하고, 스스로 물음에 답하고,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方法, 最大限의 人爲的 操作으로써 成果를 얻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여건하에 보다 實効性있는 教育支援은 教師의 부담을 덜 수 있는 効果的인 教材의 제공이 무엇보다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많이 읽게 하고, 많이 듣도록 構成된 教材, 서로 對話할 수 있는 教材, 質問을 하고, 答하고, 그것을 또 應用할 수 있는 教材, 이러한 學習의 순환에서 文章構成을 經驗하고, 文法의 統一性을 부담없이 吸收토록 하려는 것 말이다. 教師가 가르치려는 순서를 잡아 學生이 理解하기 쉽도록 만든 教材가 얼마나 큰 惠澤이 될 것인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適正한 教材를 마련 하는데 있어서는 教師가 자신이 쓴 교과서이거나 아니면 채택한 교과서를 자신의 教授方法과 學生을 고려하여 再編成하는 것이 理想의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過重한 授業時間과 많은 學生의 評價指導를 담당하고 있는 一線教師 에겐 지나친 큰 부담만 줄 뿐 아니라 오랜 體驗과 많은 試行錯誤式 修正을 요하는 작업임을 감안할 때 無理일 뿐이다. 그러므로 결국 教科書의 編著者가 이 일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編著者는 바로 一線教師가 되서, 그리고 初學者인 學生이 되어서 깊은 研究와 充分한 검토를 다하여 教材를 作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池明烈教授는 現行 교과서에 言及하여 “教科書의 內容은 大同小異하나 대체로 과중한 文法 置重, 語量의 過不足, 生活用語의 貧弱性, 第二國語 教育目的에 대한 意義의 박약에서 빚어진 本文, 例文의 非現實性을 露呈하고 있다”⁵⁾고 단호한 不信을 말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우리의 現 教科書는 수정과 改編을 要하는 커다란 現實的 問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한된 期間안에 적은 時數로서 履修해야하는 獨逸語, 그위에 補助物 조차 全無한 現 고등학교의 學習實情하에서는 가장 적절한 教材의 活用으로써만 객觀적인 成果를 補助할 수 밖에 없는 條件이다. 하지만 教材의 선택마저 문이 넓은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의 教材는 檢認定 教科書로 한정되어 있어⁶⁾ 오직 선택의 재량은 檢인정의 16종 내에 있다. 그러므로 高等學校의 獨逸語教育의 成果를 算出할 수 있는 길이라면 教科書의 체제와 內容이 教師의 教授能力과 調和되어 울어 나는 極히 簡소한 Scale이 있을 뿐이다. 이 경우 教師의 能力은 學生들에 대하여 直接的인 것이라고 하면 客體的인 條件은 오직 現 教科書 뿐이란 結論이 나온다. “출

5) 池明烈: 「第2 外國語教育의 諸問題點」, 獨逸文學 12輯, p. 187.

6) 교육법 시행령 185조 참조.

통한 교수법도 중요하려니와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자료, 그 중에서도 훌륭한 교과서의 편찬이 가장 중요하다”⁷⁾고 피력한 朴煥德 教授는 바로 이의 證言이라고 하겠다.

教科書 編纂의 골격은 ① 語彙 ② 文章 ③ 文法 ④ 練習으로 이루어진다. 훌륭한 教科書란 要컨대 教育成果를 선정하고 教授方法과 學習進度를 고려하여 어떻게 조리있게 구성하였느냐가 決定한다. 卽 初學者에게 알맞는 基本語彙를 선정하여 그것으로 文章을 만들고 文章의 점진적 숙달과 더불어 文法の 整然한 理解를 하게하여 무리없이 獨逸語를 익히도록 하는 길이다. 그리고 練習에서 다시 文章과 文法の 단계를 質疑應答으로 反復하게하여 단어와 文型과 文法이 적절하게 活用할 수 있도록 方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첫 課題는 語彙의 選定을 期해야 할 것이다. 上述한 文章, 文法, 練習의 과정을 근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어를 日常生活에서 구한다면 文章의 내용 역시 常用圈을 벗어나지 않을 것은 自明한 일이다.

活用이 큰 단어를 系列化하고 그 단어로 常用的인 文章으로 엮어 가면서 점차 水準을 上昇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기억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事物과의 相關關係에서 절로 말해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言語教育의 方法은 없다고 단언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基本語彙에 對한 問題點

語彙選定에 대한 必要性을 강조함으로써 外國語의 習得이 마치 語彙의 선택으로 左右되는 것처럼 誤解받을 우려가 있다. 사실 낱말을 익힌다는 것처럼 無爲 無得한 일은 없을지 모른다. Charles C. Fries는 “한 國語의 제일 큰 辭典에 있는 낱말을 모두 기억하여도 그 國語의 그部分만 알아서는 단지 그 部分의 한마디 밖에 할 수 없다.”⁸⁾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낱말에 대한 암기는 지극히 부질없는 것으로 받아 드려야 하겠지만 좀 더 이를 깊게 음미해 보면 말이란 낱말이 아니라 文章으로 구성되어진 낱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낱말이 곧 문장이란 것과 같은 意味이다. 낱말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낱말이 곧 文章이든지 또는 문장이 되는 낱말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辭典에서 doch가 낱말로서「a. 그래도, 그러나, adv. 어쨌든 좌우간, 그렇지만」 등의 낱말의 뜻을 익힐 것이 아니다. Du hast die Arbeit nicht gemacht?에 대하여 肯定하는 Doch! Du hast ihn gesehen?에 대하여 Doch nicht! Es wird wohl regnen에서 Nicht doch! 하면 가벼운 否定, 그리고 Komm doch!에는 강한 命令의 意志를, Käme er doch! 하면 간절한 願望을 나타내는데 活用된다. 이것들은 勿論 간단한 口語體로 충당하였지만 文語體에서도 그 活用法이 얼마나 廣範圍한가 初步者에게도 익히 알 수 있는 바다. 그러나 語彙의 선정기준은 반드시 活用性이 강한 것만이 選擇되어 질 수 없다. 前例와 같은 文章力이 강한것, 使役動詞나 일부 強變化動詞 같은 活用底邊이 큰 것, 그리고 常用語로서 받아들여야 할 語彙等を 선정하는 한편 活用性과 語義의 幅이 비교적 약한 것, 例를 들면 die Bedeutung, betrügen, braun, bereits等도 낱말

7) 朴煥德: 독일어 기본어휘 선정에 관한연구,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논문, p. 21.

8) Charles C. Fries: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p. 66, §4 1960, Michigan.

의 獨自의 힘이 크므로써 기본語彙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要컨데 語彙의 선택은 낱말이 갖는 內延과 外延의 比重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여서 選定되어야 한다. 外國人の 生活에서 기본어휘라고 하여도 우리 學習者에게 반드시 그대로 기본어휘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어휘는 單語 하나가 갖는 文章의 作用이 커야 할 것, 그 어휘는 보편적이며 또한 다른 단어와 관련될 수 있는 伸縮性이 있는 것, 또는 有用한 뜻을 가진 것 등의 어휘어야 마땅한 것이다. 또 常用語라고 하여 꼭 기본어휘로 선정될 수 없다. 가령 日常生活에서 우리들은 날씨에 대한 관심을 자주 表明한다. 하물며 西歐人の 人事는 곧장 날씨로 代用하지 않는가. 이 때 高약한 날씨를 가리켜 “Scheußliches Wetter !” “Hundewetter”라고 흔히 그네들은 말하고 있지만 scheußlich를 우리는 기본 단어로, 그리고 Hund의 活用에다 Hundewetter까지 그 活用범위를 넓힐수 없는 일이다.

Ⅷ. 調查報告

(1) 對象 및 基準

本調査는 독일어 檢認定教科書의 16종을 各二卷으로 합친 32卷을 調査의 對象으로 하고 그 調査對象의 教科書를 임의로 열거하면

1. Brunnen Lebendiges Deutsch
2. Praktisches Deutsch
3. Deutsche Sprache für Höhere Schule
4. Neuartiges Deutsches Lehrbuch
5. Heidi und Dieter Deutsches Lesebuch
6. Lebendiges Deutsches Lesebuch
7. Die Heimat Deutsches Lesebuch
8. Neues Deutsches Lehrbuch (A)
9. Modernes Deutsch(A)
10. Wir lernen Deutsch(A)
11. Lebende Deutsche Sprache
12. Modernes Deutsch(B)
13. Ich lerne Deutsch
14. Deutsche für Koreaner
15. Wir lernen Deutsch(B)
16. Neues Deutsches Lehrbuch (B) 等이다.

調査의 基準은 교과서의 本文에 수록되어 있는 語彙를 I, II 卷 別로 Card에 기록하고 Alphabet 順으로 分類해서 단어數를 調査하였으며, 단어의 頻度 하나하나를 Check해서 卷別과 種別의 統計를 잡았고 教科書 16種의 총단어수를 조사하고 그 平均値를 구해 보았으며 單語의 活用性을 검토하고 基本語彙를 선정하는 基準을 추출해 보았다. 다만 다음의 것들은 獨立 語彙로 간주하기 보다 助辭格이며, 빈도의 양이 많아 기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1) 定冠詞와 不定冠詞
- 2) 數詞(그러나 Million과 같은 單位名詞는 기록함)
- 3) 人稱代名詞
- 4) 所有代名詞
- 5) 接續詞 und, aber, oder,
- 6) 副詞 ja, nein, nicht,
- 7) 動詞 sein haben werden

(2) 語彙의 種類數와 延使用回數

16種의 I, II 卷 교과서의 단어를 Card에 수록하여 卷別과 種類別로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統計를 얻게 되었다. I 卷의 총 단어수는 13,602語이고 II 卷은 13,161語였다. 이것을 平均値를 내 보면 I 卷은 850語이고 II 卷은 821語이다. 16種 教科書의 단어수를 비교해 보면 I 卷이 최저 698語에서 최고 1,034語까지, II 卷이 614語에서 1,218語였다. 이를 I, II 卷으로 통산한다면 1,376語에서 2,175語에 이르러 간격의 幅이 현저함을 보여준다. 이는 表1과 같다.

教科書別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I 卷	947	852	921	957	931	731	803	1,304	762	729	698	835	893	769	921	762
II 卷	810	914	643	1,218	865	762	924	737	874	863	896	724	940	981	673	614

表 1

그러므로 교과서 한 種類의 I, II 卷에서 다루어진 語彙는 平均 1,672語란 계산이 나온다. 이는 文敎部의 기준 어휘수 1,700語와⁹⁾ 거의 일치되는 數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다 上記한 통계에서 제외된 單語와 文法과 練習項目에서 사용된 새 단어를 加算하면 거의 基準의 數가 될 것이다. 다만 表 1에서 보듯이 교과서의 종류에 따라 語彙數의 差가 아주 큼을 알 수 있다.

다시 이것을 使用한 延單語數를 잡아 보았다. I 卷의 使用 延單語數는 1,423語에서 3,382語이고 II 卷은 3,042語에서 5,215語에 이르는 分布를 보여 주었다. 이 I, II 卷을 통산한 延 단어수는

4,465語에서 8,597語 사이에 있으니 그 幅은 무릇 2배에 가까운 高低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한 教科書에는 평균 1,881種의 어휘가 6,762로 擴大되어 회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頻度 調査와 그 內譯

A種의 教科書에서 I 卷의 語彙는 947語인데 延單語 사용數는 3,382語였다. II 卷은 1,412語에 延單語 사용數는 무릇 5,215語로서 16種가운데 가장 단어수와 연 사용 단어수가 많았다. I 卷의 頻度を 기록해 보면 表2와 같다.

頻 度 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5	28	29	31	34	36	37	44	49	93
單 語 數	538	178	42	54	36	28	25	21	7	9	6	3	6	5	7	3	3	3	1	2	1	1	3	1	1	1	1	1	1	1	1

表 2

위의 表 2에서 보는 바 頻度 1회가 538語, 2회가 178語였다. 그러므로 한 교과서에 단 한번 나와서 사라진 단어수를 사용된 연 단어수에 대한 比率로 잡아보면 56.8%에 이르고 2회는 178語로서 全體의 18.8%, 3회가 0.47%, 4회가 0.59%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1~2회의 頻度を 가진 單語는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부터는 현저한 下降分布를 보여주고 있는 바 단어수 1,412語에 延단어 사용회수 5,215인 II 卷의 分布를 보면 表3과 같다.

頻 度 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단 어 수	772	273	134	72	49	44	28	24	11	19	4	5	5	2	8	5	2	1	5	4

表 3

II 卷에서도 頻度 1회의 772語는 全體 단어수의 1,412語에 대한 54.7%로 나타나 있고 頻度 2회의 273語는 19.3%, 그리고 3회는 0.96%이다. 그러므로 1~2회의 頻度を 가진 단어는 전체의 74%가 되므로 결국 3회 이상의 빈도를 가진 단어는 전체의 24%정도임을 말해준다.

이제 頻度分布에 따라 단어의 活用을 살펴 볼 단계에 이른 것 같다. 여기에 頻도가 가장 높은 品詞는 前置詞이다. entlang의 단 1회에서 가장 높은 117회에 이르는 in까지 있다. 그러나 사용빈도가 높은 10회 이상의 前置詞는 불과 16語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은 副詞로서 dort, sehr, da, noch, auch, so, schon, nur, dann, (10회 이상)과 같은 단어가 차지하고 있다. 그 아래로는 역시 daß wenn, als, weil 등의 接續詞이고 그 다음엔 品詞別로 두드러지게 지적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빈도가 높은 것은 역시 文章을 꾸미는 中間수식어에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頻度調査에서 가

9) 문교부 : 「고등학교 교과과정 독일어편 지침」 p. 542. 에 의하면 “빈도가 높은 일상 상용어 가운데 1,500語와 전문어, 기술어를 100~200으로 추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10) H. Oehler : Grundwortschatz Deutschen S.10. Stuttgart, 1966.

장 注目하게 하는 點은 전체어휘의 $\frac{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2회의 단어들이다. I 卷에서 한번 만으로 그친 538語 가운데 die Art, der Ausflug, der Befehl, das Dorf, die Erfahrung, das Fleisch, der Friede, 등을 비롯한 名詞는 258語였고 動詞는 sammeln, schließen, folgen, stechen 등 73語 frisch, rein, leise, gleich, 등 形容詞, 副詞가 68語였다. 요컨대 名詞, 形容詞, 副詞와 같이 文章의 골격 구실을 하는 品詞, 그 가운데서도 거의 기본어휘에 포함되는 단어들이 단 한번 밖에 그 교과서에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아쉬움을 갖게 한다. 그 단어들의 活用性을 조사해 보면 기초단어 800語속에 포함되는 것이 23%였고 나머지 92%의 단어는 기본 2,000語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참고적으로 독일의 H. Oehler¹⁰⁾ 교수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독일어의 표준텍스트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가운데 80%가 기본 1,000단어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 1,000단어에 속하는 것이 8%~10%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교과서에 사용된 어휘들이 모두 2,000어안에 포함되는 단어라고 할 때 아무리 따져 보아도 빈도 1회로는 만족하다고 할 수 없는 反復이 아닐까? 더구나 어휘 1,412語가 그 교과서에서 연사용수 5,215로 회전 사용되었다면 평균 3.5의 반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기본어휘에 해당하는 단어가 한 교과서 안에서 단 한번의 사용으로 끝난 것이 전체 어휘수의 56%에 이르는 比率이라고 하면 全體的인 頻度는 거의 1에 가깝다고 하여도 지나친 억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단어가 특수전문 용어이거나 活用성이 빈약한 단어가 아닐때 적어도 3회 이상의 活用이 要求되어 마땅하다 하겠다. 이러한 統計는 물론 16종의 교과서는 서로 상당한 差異가 나타나 있다. 上記한 例는 다만 교과서의 종류 가운데 단어수가 평균보다 가장 많은 것을 선택하였을 뿐이다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아래에 단어수가 가장 적은 교과서의 경우를 調査한 바 表4 및 表5와 같은 結果가 나타났다.

I 卷—698語(연 단어 사용수, 1,823語)

頻度 A

頻 度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單 語 數	280	141	47	21	18	10	14	9	8	5	4	3	5	3	4	3	2	3	1	2

表 4

內譯: 1) 빈도1은 전체단어수에 대한 40%이고 빈도 2는 23%이다. 그러므로 빈도 1~2가 전체의 63%에 해당하는 큰 비율이다.

2) 1~2회의 낮은 빈도의 品詞는 名詞가 $\frac{3}{5}$ 에 해당하고 $\frac{1}{5}$ 이 動詞, 그리고 나머지 $\frac{1}{5}$ 이 形容詞, 副詞 및 기타에 해당한다.

3) 빈도 1~2의 단어들은 82%가 기본어휘 2,000語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빈도가 더 많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4) 빈도를 10~20에 속하는 단어는 대부분 viel noch. schön schon. ganz dort 같은 副詞, 形容詞이고

名詞은 號稱 Herr, Frau 그리고 Lehrer, Schüler Vater 等屬이다. 그리고 動詞은 gehen, kommen, sehen, geben, lernen, sagen 語法助動詞 können, wollen, müssen의 順位를 이룬다.

5) 20~40 以上은 주로 前置詞의 10개 內外이다.

Ⅱ 卷-1, 015語(연 단어 사용수 3, 362語)……1, 015語에는 Ⅰ 卷의 479語를 포함하고 있음.

頻度 B

頻 度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單 語 數	509	135	78	40	37	25	16	17	6	9	3	14	5	6	6	10	4	6	5	3

表 5

內譯: 1) 頻度1은 전체단어수 1, 015語에 대한 50, 1%이고 頻度 2는 12, 3%이다. 그러므로 빈도 1~2는 전체의 62. 4%에 해당하는 큰 비율이다.

- 1~2회의 낮은 빈도의 品詞은 1卷과 거의 같은 비율을 보여준다. 즉 名詞 4에 動詞 2, 形容詞, 副詞가 각각 1, 기타 1의 比率이다.
- 빈도 1~2회의 단어는 88%가 2, 000의 기본 어휘에 포함되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더 높은 빈도가 요구 될 수 있다.
- 10~20회의 단어는 다른 교과서보다 단어수가 낮은 편이며 일반적인 文章의 수식어들이다. 名詞에 der Wald, das Volkslied, das Mark 등이 다른 교과서보다 많이 사용되어 있다.
- 20회 이상은 역시 前置詞, 副詞, 語法 助動詞, 가 順位를 이루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頻度率의 分布는 단어의 수가 많은 교과서이거나 가장 적은 교과서나 거의 비슷한 比率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缺欠 작업을 거쳐 各卷을 종합하여 그 10회까지의 빈도를 조사하여 16권에 대한 平均치를 구하여 보았더니, 역시 頻度와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表 2, 3과 4, 5의 內譯과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本調査에서 한가지 틈을 보인것은 統計對象에서 除外한 단어의 처리문제였다. 즉 冠詞, sein, haben, werden동사를 비롯하여 人稱代名詞, 所有代名詞 그리고 副詞 ja, nein, nicht, 形容詞 kein, 그리고 接續詞 und, aber, oder, 等이다. 이것들은 어느 教材를 一見하여도 알 수 있듯이 사용 빈도가 가장 많다. 그러므로 단어의 빈도를 調査하여 단어에 대한 適正頻度를 係數로서 파악하고 그 差의 幅을 어떤 角度에서 認定하며, 또한 是正해야 하는가를 學習面에서 검토해 보려는 本資料調査에는 큰 意義가 없다고 생각했다. 절대적으로 많은것, 많을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參考資料에서도 認知할 수 있다. 即 1930年代 독일의 速記 研究家인 Kaeding¹¹⁾은 12개 種類에 걸친 각종 分野의 資料를 조사한 頻度表와 오늘의 J. A Pfeffer¹²⁾의 頻度調査를 비교해 보면 時間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사용어휘의 同一性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Thorndike의 英語의 빈도 順位와 대조하던 더욱 흥미롭다.

조사자	Kaeding	Pfeffer	Thorndike ¹³⁾
빈도순위			
1위	der	der	in
2위	und	und	and
3위	zu	sein동사	the
4위	in	ein	a
5위	ein	ich	to

(4) 基本語彙 選定

1. 基本語彙選定の 目的

基本語彙를 選定하려는 目的은 語彙의 量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語彙의 사용에서 생기는 言語習得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데 있으므로, 그 制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基礎過程에 있어서는 學習能率을 최대한으로 도모하기*위하여 語彙의 적절한 선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時間과 條件에서는, 外國語의 習得能力이 있는 學習者에 대하여는 도리어 語彙의 擴大가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사실 어휘의 量的 理解가 갈수록 言語實力은 굳어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초과정에서는 語彙뿐만 아니라 文法이나, 講讀까지 量을 축소해서 최소의 부담을 갖게 함으로써 最大의 學習効果를 기대하려는 것이지만 기초가 닦아지고 나면 語彙의 量은 점점 증가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듯 한편 制限하고 한편 增加해야 하는 모순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語彙選定은 또한 必要한 것이다. 즉 어떻게 制限해야 하는가? “제한”은 단어의 과다한 증가를 막으면서 잠재적 증가의 幅을 스스로 지니고 있는 단어를 찾아 내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語彙를 선정하려고 하면 누구나 두가지 基本方針을 강조한다. 하나는 반드시 常用語를 어휘 선정의 要件으로 해야 한다는¹⁴⁾ 것이고 둘째는 어휘의 數를 초학자의 경우 1,000語에도 2,000 까지 制限하려는 것이다.¹⁵⁾ 다만 이러한 要件을 合理的으로 充足케 하는 問題가 남아 있다. 여기 에 筆者는 교과서 16종을 分析하고 검토한 자신의 資料를 토대로 하여 하나의 기준을 提示하고자 한다.

2. 常用語 選定の 問題

11) H. Kaeding : Häufigkeit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S. 12 Berlin, 1930.

12) 朴煥德 : 독일어 기본어휘 선정에 관한연구, p. 10 서울, 1973.

13) Thorndike 미국의 教育心理學者로서 미국인의 頻度높은 어휘를 조사 10,000語 順位를 만들었다

14) 문교부는 1967년도 교과서 개정의 지침에서 용어의 制限을 “사용의 빈도가 높은 일상 상용어라”고 지정함.

15) 1967년 개정 이전의 구교과서에서는 2,400자를 어휘의 기준으로 하였음.

常用語란 일상생활과 더불어 부단히 사용되는 單語로서 다음과 같은 長點이 있다. ① 生活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理解하기에 쉽고, ② 對話하는 말에서 反復이 자연스럽게 가능하고, ③ 활용하는 말이어서 응용이 쉽다. ④ 쉽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利點을 그야말로 利롭게 하기 위하여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로 日常 常用語, 그것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日常의 범위는 넓고 階層에 따라 狀況에 따라 다양하다. 아침인사와 저녁인사로 끝날 수 없고, 같은 내용이면서 그 表現은 여러 갈래로 나열할 수 있다. 또 하나의 難點은 상황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소재를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會話教科本과 다른 學習教材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살리고저 하면 도리어 日常의인 내용을 教材에 매양 이용하려 하면 그 내용이 단조로와 편저자의 부담이 안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같은 내용이 여러가지로 表現된 예를 들면

그렇지요.	그렇지도 모르지요.	감사합니다.
Gewiß. Ganz gewiß	Mag sein!	Danke!
Sicherlich. Ganz sicher.	Kann sein!	Besten Dank! Vielen Dank!
Ganz recht.	Das ist auch möglich.	Ich danke Ihnen!
Ganz entschieden.	Wohl möglich.	Ich kann Ihnen nicht genug danken.
Absolut.	Sehr wohl möglich.	Wie soll ich Ihnen danken?
Zweifelsohne.	Es hat den Anschein.	Sie sind sicher liebenswürdig!

이상의 표현은 물론 꼭 같은 것은 아니다. 狀況에 따라 다르며 표현에 따라 Nuance가 달라진다. 그러나 초학자의 경우 그러한 관계를 명확히 잡아 줄만한 겨를이 없다. 오직 그 많은 표현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만으로 벽찰 뿐이다.

둘째로 常用語는 對話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反復의 利點이 있다. 한 言語를 習得하는데 反復이 주는 効果는 크다. 흔히 幼年期가 言語習得에 있어 最適期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의 知能이 意思傳達의 강한 욕구에 依하여 남의 말을 되풀이 하려는 反復의 機能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高等學校의 外國語教育에서 反復의 機能을 용이하게 利用하기란 너무나 여건이 不備하다. 그러므로 部分的인 反復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교과서에도 Dialogue를 상당한 부분 삽입하고 있다. 그 素材는 비교적 공통점이 많아서 이를테면 ① 인사, ② 소개, ③ 訪問 ④ 旅行, ⑤ 약속, ⑥ 축하 ⑦ 安否 등이다. 그리고 이들 素材에서 연속적으로 지적되는 反復은 인사와 安否, 유감과 감사의 대화가 주로 되풀이 되고 있다. 따라서 學習教材의 난해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일반적인 문제에서 특수한 내용으로 高調되어가게 하는 內容面을 常用語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編著者는 충분히 검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로 日常 常用語로 쓰이는 단어가 반드시 活用性이 높은 것 만이 아니라는 點이다. 가령 liebenswürdig, gestatten, belieben, erledigen, gütigst 같은 술한 단어들은 口語에 흔히 쓰인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는 口語에서의 頻度는 높지만 語意가 너무 편협됨으로써 基本語彙로서 지적

하기 곤란하다. 이와 같이 많은 常用語는 文語와의 유통이 극히 폐쇄적이란 흠이 있다. 넷째로 常用語로 구성된 文章은 對稱的이므로 第3의 知的 內容을 서술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기초과정을 거쳐 獨逸語의 이해가 어느정도 익혀져서 學習者의 知的水準에 맞는 水準級내용을 소재로 할 경우, 그리고 부득이 가르칠 수 밖에 없는 文法, 이를테면 關係代名詞, 分詞, 不定詞 같은 文章을 위한 필수적인 文法을 이해시켜야 할 경우, 상용어의 문장을 억지로 사용한다면 때로는 어색한 점이 노출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學習을 위한 語彙選定에는 常用語와의 配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語彙數의 制限

기초 학습과정에 있어 語彙의 數를 制限하므로써 學習成果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理論은 이미 여러 側面에서 考察하였다. 그리고 數의 制限은 學習에 필요한 成分의 語彙를 선정하기 위한 함이라는 것도 거듭 부연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다만 조사한 資料를 검토하여 몇가지의 견을 첨가한 바를 整理하여 하나의 원칙을 마련해 본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語彙의 數를 制限함에 있어 研究家들은 대체로 2,000語 정도가 적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중 1,000語가 日常生活에서 80%의 活用性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밝혀 주고 있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文敎部 指針에 의한 고등학교 교과서의 1,700語의 어휘제한은 상당한 妥當性을 인정할 수 있으며, 反面에 舊교과서의 2,400語는 약간의 無理가 있고 따라서 改正의 이유를 어휘면에서도 수긍하게 한다) 要컨대 단어의 頻度를 効率的으로 배합하고 進度를 學習成果와 잘 조절한 教材의 編纂을 前提로 하면 語彙의 數는 現行보다 훨씬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學習能率의 증대, 外國語의 水準도 또한 向上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이제 筆者나름의 方案을 펴 보고자 한다. 1) 日常用 語彙는 600語로 할 수 있다. 기본단어 1,000語로서 日常對話의 80%가 充當되고 있는 指數에 의거하여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常用語는 500語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獨逸人의 常用語를 낱말이 우리 것으로 할 수 없고 누구나 學習을 통하여 익히야 하는 마당에서 독일의 日常語를 그대로 모두 받아 드린다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된다. 평범한 常用語를 중심으로 말을 엮어 가는 능력이 우선 필요한것이다. 日常 常用語 500語를 가지고 21個項에 851文의 用例를 보여 주고 있다.¹⁶⁾ 물론 그것은 지나치게 간편한 내용이지만 努力에 따라 충분히 理想的인 文例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100語를 더 첨가하려는 것은 常用語를 위한 補助語를 두려는 것이다. 즉 간결한 口語體를 더 보충할 수 있는 形容詞, 副詞, 接續詞, 그리고 生活周邊에서 필요한 用語들을 보충하려는 의도이다. 2) 文語體를 위하여 700語는 필요하다. 外國語의 目的論에서 詳述한 바와 같이 우리들은 先進國의 文物을 전

16) G. Fusida : Deutsche Umgangssprache mit nur 500 Wörtern, Hyoronsa, Tokio, 1972

17) 鄭鎮郁 : 獨逸語教授法試論, 獨逸文學 14輯, p. 195, 1971.

18) 문교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전문용어, 기술용어를 위하여 100~200語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外面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현실적으로 實用性이 불가피 하다지만 엄밀히 말해서 教育的의 意義는 讀書하고 思考하는 힘을 갖게 하는데 있다. 그러면서 겨우 700語를 가고고 읽을 것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작업이다. 이미 내 놓은 常用語 가운데 이용할 수 있는 단어를 다시 活用하면서 단어의 다양한 의미와 用法를 周知시키기 위하여 編著者는 용이주도한 研究를 거쳐야 할 것이다. 先進國의 文物을 비롯하여 社會生活의 習俗, 逸話, 地誌 등 범연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轉載하기보다 進度와 水準을 조화시키면서 기왕에 선정된 語彙를 충분히 活用하는 새로운 創作을 시도하는 敎本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敎本에는 文法의 効用性도 아울러 배려해야 할 것이다. 요즘 새 教授法의 過信으로 文法은 外國語 習得에 無益하다고 거부하는 경향¹⁸⁾이 있다. 文法이란 言語를 公式化시킨 한갓 知識學的 遺物로 받아 드리려고 한다. 그러나 책상 앞에서 배워야 하고 더우기 獨逸語같이 古典의인 言語構造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쉽게 터득할 수 있는 實利가 또한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종래의 文法式 言語敎習을 지양하고, 語形, 文型의 變化構造를 文例를 통하여 먼저 체험하게 하고 거기서 이끌어 진 法則, 말하자면 좀 더 편리한 理解를 위하여 스스로 이끌어 낸 文法은 장려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文法의인 整理없이 엄청난 時間만 소비하고 실속없는 單元도 적지 않다. 冠詞를 비롯하여 數를 헤아리는 것, 時計를 읽는 것, 關係詞를 구사하는 것, 變則的인 格의 用法等. 결국 서로 調和이론 應用이 學習成果를 보장해 줄 것이다. 3) 200語는 專門, 技術用語를 위하여 필요하다. 한 單元에 목적인 바 내용을 만들기 위하여 上述한 여러 條件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作成한다 하더라도 그 主題와 관련된 불가피한 專門用語는 있기 마련이다. 이 단어들이 기본어휘가 아니라고 하여 類似 語意로서 대체 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의미한 작업이 될 뿐이다. 물론 專門用語가 지나치게 많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이미 그 내용은 言語學習을 위한 한계를 넘은 내용으로서 선택 이전의 문제일 뿐이다. 言語를 習得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씩 學術語, 技術語와 접하게 되면 오히려 用語의 뜻도 쉽게 이해되고 익히기에 쉬운 利點도 있다. 그리고 날로 生活圈이 확대되어 가는 마당에 固陋하고 陳腐한 내용은 生活文化와 관련된 새로움으로 對替하는 작업에서도 專門用語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專門用語 200語가 차지하는 比率이 낮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日常語 600語, 그리고 文章語 700語와 比較해 보면 결코 더 욕심낼 수 없는 語彙의 數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Ⅳ. 結 言

독일어를 배우는 첫 과정인 고등학교에서 檢認定 敎科書는 그들의 學習을 위한 敎材로서 절대적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각종 참고서적이 이를테 없이 범람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主體인 敎科書의 補助物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敎科書의 構造를 分析한다는 것은 學習成果를 診斷하는데 無意味하지 않을 것이다. 筆者는 本論에서 語彙分野에 대한 改正의 必要性을 提示한 바 있으나 그것은 敎科書에 사용된 語彙가 不當하다는 것이 아니다. 초학자를 위

한 알맞는 基本語彙가 비교적 정연하게 이용되어 있고 語彙의 數的 制限도 指針에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內容이 文法을 援用하는데 지나치게 배려를 하여 單語와 單語와의 從, 橫的인 연결이 缺如되어 있었다. 따라서 語彙의 비약이 현저하였으며 活用的 頻度는 사실 學習效果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것은 編著者의 결함으로 지적되기 보다 종래의 교육지침이 그랬듯이 교과서 I, II卷으로서 독일어를 완전히 익히게 하기 위하여 슬한 項目을 망라한 과육이 빚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最近 第2 外國語의 學習成果를 評하여 만족할 만한 實力이 아니라고 우려하면서 혹자는 第2外國語를 不實科目으로 지탄하는 이도 있다. 이들의 共通的인 이유는 高校의 現行 教科課目이 너무 많아 學生에게 受容부담이 과중함을 지적하고, 특히 第2外國語는 勞力에 비해 習得의 過少를 指摘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皮相的인 견해에 불과하다. 물론 課目的 어려움은 일반과목에 비해 더 하다 하겠으나 현재 주당 2시간으로서 그 만큼의 水準級 教育成界를 얻기에도 드문 일임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해마다 향상되는 大學入試의 경우도 이를 위한 例가 될 것이다. 光復 以後 獨逸語는 줄곧 第2外國語의 大宗을 이어왔다. 數年前 政策的으로 分散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男女 人文高校의 70%를 독일어가 차지하고 있다. 海外留學生의 進出이 美國 다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近年에 이루어진 人力交流의 실적도, 그 實 眼目으로 추진되어 온 독일어 교육의 한 結實이라고 評價되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좀더 바람직한 教育目標에 도달하기 위하여 많은 問題를 포착하고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比단 內的인 것만이 아니다. 教育政策的인 配慮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 가령 反共 道義教育의 必要性을 인정하면 反共, 道義課目만을 政策的으로 擴充하므로써 實効를 보장하려 할 것이 아니라 外國語의 內容에도 반영되는 方向에서만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本研究가 教科書의 語彙面을 다룬 것과 併行하여 內容, 文法, 練習의 分野를 다루어 全面的인 調查 分析을 이루지 못한 點이 아쉬우며 이 點 하나의 宿題로서 後日을 기약하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1. Robert L. Politzer : Foreign Language Learning. New Jersey. 1967.
2. Charles C. Fries :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Michigan 1959.
3. A. Holske, P. M. Palmer : Auf deutsch, bitte ! Ginn and Company, Boston 1960.
4. Hugo's Language Institute : Hugo's German in Three Months. London 1955.
5. H. Oehler : Grundwortschatz Deutschenh. Stuttgart, 1966.
6. H. Kaeding : Häufigkeit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1930.
7. E. Agricola : Wörter und Wendungen, München, 1969.
8. Der Große Duden : Duden-Bild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Mannheim 1956.
9. Kaitakusha : Die 1500 Grundwörter der deutschen Sprache. Tokio 1958.

- 10.) G. Husida : Die 3000 Grundwörter des Deutschen. Sansyusya. Tokio, 1971.
- 11.) S. Hadori : 4000 Wörter Deutsch zum plaktischen Gebrauch. Hakusuisha Tokio, 1969.
- 12.) G. Husida : Deutsche Umgangssprache mit nur 500 Wörtern. Hyoronsha. Tokio, 1972,
- 13.) 문교부 : 고등학교 교과과정, 한국교과서주식회사, 서울, 1963.
- 14.) 朴煥德 : 독일어 기본어휘선정에 관한 연구, 서울. 1972.
- 15.) 獨逸文學. 第13·14.輯, 한국독어독문학회, 1972.

